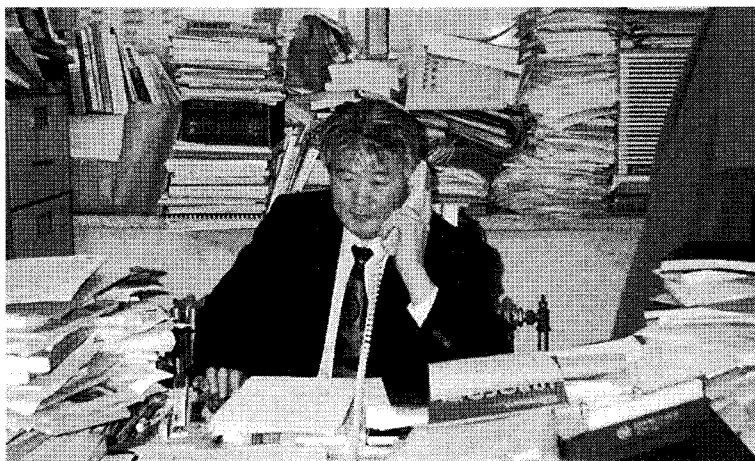


폐기물의 유용자원화에 역점 학회 중간자적 역할 속 폐기물 문제 해결

도갑수 / (사)한국폐기물학회 회장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도갑수(사)한국폐기물학회 회장

지난 83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폐기물 문제에 관한 해결방향을 짚어온 (사)한국폐기물학회가 민선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사)한국폐기물학회 설립 당시부터 학술이사 등 임원으로 학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고 지난 4년간은 부회장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회장으로써의 소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 같군요. 물론 회장이라는 직위가 학회를 대표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 자리이니만큼 학회의 역할과 이후 방향에 대한 고민은 더욱 많습니다”라며 회장으로서의 소감을 담담하게 밝힌 도갑수 신임 회장은 “86년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고 87년 당시 환경청에 폐기물관리국이 생기면서 정착되기 시작한 폐기물 문제는 소비자, 생산자, 정부의 입장이 각각 상반되는 분야입니다. 소비자는 생활폐기

물, 생산자는 생산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정부는 시책을 세워 이를 규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지요.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기 쉬운 폐기물문제에 있어 학회는 기업체와 정부, 민간단체, 학계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의견 조정의 역할을 맡아 왔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지금까지의 (사)한국폐기물학회가 맡아온 주된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1980년 숭실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도 회장은 83년 산업대학원에 환경공학과를 개설하였고 92년 리우 회담 등 세계적으로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무렵 (주)진도와 협력하여 숭실대학내에 폐기물자원화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전국대학 2부부서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전체 입학생의 13%를 차지하고,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2부학생들에 대한 권익을 위해 앞장서 오기도 했다.

최근 사업장폐기물이 늘어는데 폐기물은 가정과 사업장이 모두 발생원이지만 현장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의 과정이 필요한데 생활주변은 물론 지역 및 지구환경에 위대한 폐기물의 관리가 향후 환경관리의 기본적인 과제이다.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첫번째가 그 양을 줄이자는 것인데 종량제의 실시 등을 통해 감량화 방안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지만 생활곳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기본적인 양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두번째로 재활용 및 재이용의 방법, 또 태울 수 있는 것을 분리해 열로 환원시키는 중간처리의 방법이 있으며 최후의 방법으로 매립이 있다. 이중 매립이라는 방법이 국내 폐기물처리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실정상 매립지가 부족하고 결국 매립된 폐기물이 토양오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 및 소각을 통한 열로의 환원 등 정책의 흐름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현명하게 폐기물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항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폐기물 문제의 쟁점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포장폐기물 문제이지요. 그만큼 관련 연구 실적도 많고 관련 규제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를 규제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시각에서 무조건적인 규제가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포장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만큼 문제를 노출시켜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포장관련업체에서는 환경친화적인 포장재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ICA평가를 통해 포장재를 분별하여 각 재질의 장점을 부각시켜 적절한 포장재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포장폐기물 문제에 생산업체와 소비자들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앞으로의 학회의 방향에 대해 “지구화, 국제화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반응과 환경운동의 방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한국폐기물학회도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차원에서의 국제교류를 넓혀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활동을 통해 1500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학회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라는 도 회장은 앞으로 (사)한국폐기물학회는 정책, 소각, 매립, 재활용, 유해폐기물분과로 이루어져 있는 학술분과에서 지속적으로 학술활동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폐기물문제의 주체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 해결점에 다다를 수 있는 능동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4월에는 환경보전협회의 전시회와 더불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5월에는 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공감을 만들 예정이고 매월 학술대회를 통해 주민안내와 기술력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은 단순히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로만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해 각 분야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는 지금, 소비자부터 정부까지 현실적인 해결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폐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윤지은 기자